창의융합연구
Journal of Creativity and Convergence
2025, Vol. 5, No. 2, pp. 117-131
http://dx.doi.org/10.23021/JCC.2025.5.2.117

한국 교회의 ‘십자가의 길’ 연구

박아림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교수 및 창의융합연구소 운영위원[1)]

초록

본 논문은 1890년대~1950년대에 건립된 한국 가톨릭 교회에 설치된 ‘십자가의 길’ 미술을 대상으로, 그 분포·유형·제작 및 유통 경로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현장 조사를 통해 ‘십자가의 길’ 미술의 분포를 파악하고, 이를 인쇄 성화(회화)와 부조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여 형식적·도상학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설치 과정과 연대를 추적하기 위해 전주교구 문서 자료를 활용하여 교구 내 본당과 공소에서 ‘십자가의 길’ 설치를 담당한 사제와 설치시기를 확인함으로써, ‘십자가의 길’의 설치와 조성 맥락을 구체화하였다.

분석 결과, 이 시기 교회 내 ‘십자가의 길’은 주로 독일·이탈리아·프랑스 제작의 다국어 캡션을 지닌 인쇄 성화와 부조로 구성되었다. 성화의 경우, 번호 표기가 로마 숫자(Ⅰ, Ⅱ, Ⅲ)와 한자 숫자(壹, 貳, 參)로 병용되며, 특히 한자 숫자 표기는 중국 상해 토산만(土山灣, Tu Shan Wan) 성물 제작소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독일 제작 성화는 작품 전면의 번호와 다국어 제목 나열을 통해 종교 성화의 활발한 수출 구조를 드러낸다. 부조형 ‘십자가의 길’은 형태를 기준으로 네 유형으로 분류되며, 초기 프랑스 제작 소형 목부조에서 1930~1950년대의 타원형·첨두 아치형·장방형 부조로 확장되는 변화를 확인하였다.

키워드

십자가의 길, 파리 외방전교회, 성물, 토산만

Manuscript received December 21, 2025 / Accepted December 27, 2025
1) apark@sookmyung.ac.kr

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ShareAlike 4.0 International License

1. 머리말

예수의 고난 장면을 묵상하는 기도의 수행을 위하여 교회 내외부에 14 곳의 고난 장면을 설치한 '십자가의 길(Stations of the Cross, Via Crucis, Via Dolorosa)'은 교회 전통에서 가장 널리 사랑받는 신심 수련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신자들이 예수의 수난 사건들을 단계적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14처로 구성되어 있다. '성로 선공(聖路善功)', '성로 신공(聖路神功)', 또는 '14처 기도'(十四處祈禱) 등으로도 부른다.[2] 1233년을 전후하여 프란치스코회 수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상주하며 수난과 관련된 거룩한 장소를 복원하였다. 16세기 유럽에서는 예루살렘 성지를 모형화 한 '십자가의 길' 시설이 조성되었으며 18세기에 이르러 교황 클레멘스 12세(재위 1730－1740)가 14처로 확정하였다. '십자가의 길' 14처는 성화(聖畫)와 조각으로 제작되어 교회에 배치되었으며, 사순 시기 신자들이 각 처를 옮겨 다니며 기도를 바치는 관행이 정례화 되었다. '십자가의 길'은 각처에서의 기도를 통해 성지 순례를 대신하는 영적 효능을 지니는 동시에, 사순절 동안 그리스도의 수난을 묵상하고 대사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신심 실천으로 자리 잡았다. '십자가의 길'이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 설치 장소는 프란치스코회 수도원 경당과 성당이었다. 그러다가 1731년에 이르러 교황 글레멘스 12세가 경당, 성당, 순례자들의 숙소, 순례지의 실외, 교회 묘지에도 설치를 허가하게 된다. '십자가의 길'의 설치와 축복은 추기경, 교구 직권자, 프란치스코회 지역 장상 및 위임받은 사제로 제한되었다. 현재는 대개 성당의 축성식과 함께 '십자가의 길'의 설치와 축복이 이루어진다(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1999).

1886년 조불수호조약(朝佛修好條約) 이후 한옥 양식과 서양 고딕 양식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의 길'이 교회에 공식적으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다른 교회 미술품과는 달리 오늘날까지 주목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체계적으로 연구된 논문이나 자료도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전국 각지 교회 답사를 통해 현존하는 '십자가의 길'을 확인한 결과물로서 이 분야의 교회 미술에 대한 첫 번째 전문적인 논문으로 높은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본고는 한국 교회에 설치된 '십자가의 길' 미술의 분포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회화(인쇄 성화 포함)와 부조의 두 유형으로 분류하여 형식적·도상학적 특징을 분석한다. 이어 설치 과정, 제작·설치 시기, 그리고 연원을 고찰함으로써 '십자가의 길' 미술의 성립 맥락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고자

2) 제1처 예수가 사형 선고받음, 제2처 예수가 십자가를 짐, 제3처 예수가 기력이 떨어져 넘어짐, 제4처 예수가 성모를 만남, 제5처 시몬이 예수를 도와 십자가를 짐,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의 얼굴을 닦아 드림, 제7처 기력이 다한 예수가 두 번째 넘어짐, 제8처 예수가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함, 제9처 예수가 세 번째 넘어짐, 제10처 예수가 옷 벗김 당함, 제11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 제12처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음, 제13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 제14처 예수가 무덤에 묻힘이다.

한다. 연구대상은 19세기말-20세기 전반에 건축된 교회들에 설치된 '십자가의 길'로 교회의 건축 시기 순으로 서술한다.

2. '십자가의 길' 기도의 유포

한국에서 '십자가의 길' 기도가 공식적으로 유포된 시점은 파리 외방전교회(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의 조선 대목구장 베르뇌(Siméon-François Berneux, 1814-1866) 주교가 1857년 8월 2일 신자들에게 반포한 『장주교윤시제우서(張主敎輪示諸友書)』에서 찾아볼 수 있다(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pp. 159-163). 베르뇌 주교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지침에서 세례와 관련해서 삼본문답(三本問答, 세례문답, 고해문답, 성체문답)과 '십자가의 길' 기도를 익힐 것을 강조하고 있다(정순택, 2017, pp. 207-224). 또한 『베르뇌 주교의 1858년 4월 사목서한, 사천 시노드와 조선 지역 시노드를 공포하며』에 의하면 '십자가의 길' 기도와 로사리오(묵주) 기도가 신자들이 반드시 바쳐야 하는 기도로 신자들의 신앙생활에서 중시되었다(Berneux, 2018, pp. 697-713).

1862~1865년에는 기도서인 『천주성교공과(天主聖敎功課)』를 간행하였는데 『천주성교공과』 4권의 가장 앞부분에 '성로선공(聖路善功)' 또는 '성로신공(聖路神功)', 즉 '십자가의 길'의 내력과 성로를 거행하는 법으로 공번된 법과 격외의 법을 설명하고, 기도문을 순서대로 싣고 있다. 공번된 법에서는 주교의 허락을 받아 열 네 좌의 십자가를 축성하게 하고 성당, 공소에 둘 때에 첫번째 좌는 제대 곁에 모시고, 그 나머지는 차례로 둘러 양편에 모시되 열 넷째 좌는 또한 제대 곁에 첫 좌에 대하여 둔다고 하였다(한국교회사연구소, 2017, p. 234; 2018, p. 573). 신유박해 순교자이자 동정부부 복자인 이순이 루갈다(1782-1802)가 옥중 편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강한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 공로에 의지하여 이겨냈다고 고백한 사례는, 당시 신앙 실천에서 수난 공로에 대한 의탁과 십자가 신심이 차지한 비중을 보여준다. '십자가의 길' 기도에 관한 신심은 다블뤼 안토니오(Marie Antoine Nicolas Daveluy, 1818-1866) 신부와 내포 지방에서 함께 선교 활동을 한 오메트르 신부(Pierre AumaÏtre, 1837-1866)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오메트르 신부는 미리내의 거주지에 있던 작은 방에 제대를 세우고 벽에 움푹 들어간 곳에 성모 마리아 상을 놓았고 벽 양쪽에는(만주 대목구장 베롤 주교가 선물한) '십자가의 길' 그림들을 설치하여 성모 신심과 '십자가의 길' 신심을 조선에 전파하였다(박아림, 2025, pp. 42-44; 윤민구, 2013, p. 334, pp. 401-402; 천주교 신봉동성당, 2013, pp. 57-58; 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2002, 9권, p. 6443).

3. 성화 형식의 '십자가의 길'의 분포와 유형

3.1. 분포 현황

다음에서는 1890년대 개화기부터 1950년대까지 국내 성당에 설치된 '십자가의 길' 미술을 회화와 부조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포 현황을 살펴보고, 교구의 설치증명 기록과 인쇄 정보 등을 찾아 검토하고 연원과 유입경로를 살펴본다. 서울 명동 주교좌성당(1898)은 건립 당시인 1898년 8월 28일 뮈텔(Gustave Charles Marie Mutel, 1854-1933) 주교의 일기에 "[오후] 3시에 대성당에 두 벌의 14 처를 설치했다"는 기록이 있다(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p. 306). 설립 초기에는 고딕풍 장식의 나무틀에 넣어진 회화 형태였다.

현재 교회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장 오래된 '십자가의 길'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실 폴로베르(Achille Paul Robert, 1853-1922년) 신부가 세운 대구 계산 주교좌성당(1902)에 있다(이명희, 2015, p. 106). 선명한 색감에 명암 대비를 활용하여 인물들이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표현되었다. 액자 하단에는 '갖은자'[3]로 순번을 적었다(그림 1). 같은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는 1902년 프랑스 툴루즈의 앙리 빅토르 제스타 공방에서 제작한 작품이다(정수경, 2009, pp. 193-217; 정수경, 2010, p. 49). '십자가의 길' 성화는 액자의 한자 순번 사용으로 프랑스가 아닌 중국을 경유하여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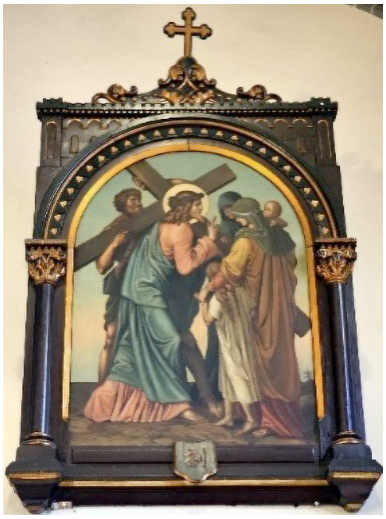

그림 1 대구 계산성당 '십자가의 길'[4]

3) '一, 二, 三, 四, 五, 十'을 '壹, 貳, 參, 肆, 伍, 拾'과 같이 원래의 한자보다 획을 많이 하여 쓰는 한자를 '갖은자'라고 한다.

4) 2025년 3월 저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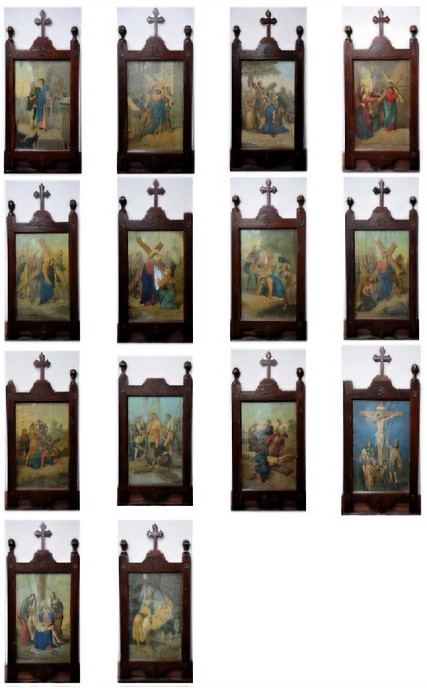

그림 2 상홍리공소 '십자가의 길'[5)]

전북 익산 나바위성당(1906)의 '십자가의 길' 성화는 부드럽고 온화한 색감이 사용되었으며, 다색 석판화 기법을 사용한 인쇄 성화로 보인다(박아림, 2024, pp. 326-327). 나바위성당은 조제프 베르모렐(Joseph Vermorel, 1860-1937) 신부가 건축하고 빅토르 루이스 프와넬(Victor Louis Poisnel, 1855-1925) 신부가 설계를 도왔다. 14처 그림 액자는 성당 건립 당시 중국 남경 성 라자로 수도원에서 만들어 보내준 것으로 되어 있다(천주교 천주교구, n.d.). 나바위성당 성화와 똑같은 '십자가의 길'은 전북 진안 어은공소(1909), 전남 장수 수분공소(1913), 전북 진안 한들공소, 전북 김제 수류성당, 충남 서산 동문동성당 상홍리공소(1919)(그림 2), 대구 금호성당 신광공소, 충남 예산 양촌공소, 경북 청도 구룡공소 등에서 확인된다.

3.2. 설치 증명

나바위성당, 어은공소, 수분공소, 한들공소 등의 '십자가의 길' 설치에 관해서는 천주교 전주교구의 인덱스 제네랄리스(Index Generalis)의 '십자가의 길' 설치 증명(Testimonium Erectionis Viae Crucis)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전주교구의 기록에 의하면 1910년대 3건, 1920년대 6건,

5)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건축공학부 도시건축연구소. (2012). *서산 상홍리 공소 기록화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p.xiii.

1930년대 15건의 ‘십자가의 길’ 설치증명이 확인된다(박아림, 2025, p. 234).

어은공소는 1900년 김양홍(金洋洪, 스테파노, 1874~1945) 신부가 초대 주임으로 파견되어 1904년 한옥 성당이 신축되었다. 1905년에는 성당에 ‘십자가의 길’ 14처를 설치하였다. 전주교구 인텍스 제네랄리스의 ‘수분리 1927년 김 바르나바 신부’의 설치 증명은 수분공소의 초대 주임 김필곤(金泌坤, 1898-1928년) 바르나바 신부가 ‘십자가의 길’을 수분 공소에 설치하였음을 알려준다. 진안 한들공소는 1926년 8월 8일에 이상화(李尙華) 바르톨로메오(1876-1957) 신부가 ‘십자가의 길’ 2벌을 설치하였다. 대구 금호성당 신광공소에는 드망즈 주교의 1926년 공소 축복장과 1920-1921년의 14처의 위치 변경 기록이 있다. 청도 구룡공소의 옛 ‘십자가의 길’ 성화는 1921년 12월에 성당을 축성하고 주보는 성모설지전(聖母雪地殿)으로 하고 성로십사처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 수분공소, 한들공소, 신광공소, 구룡공소의 설치 기록은 대개 1920년대에 ‘십자가의 길’ 성화가 설치되었음을 보여준다.

상홍리공소는 폴리(Desideratus Polly, 1884-1950)신부가 1920년 본당을 상홍리로 이전하여 건설하였다. 새 성당의 신축 후 수곡 본당에 1911년 설치하였던 14처의 그림을 상홍리로 옮겨왔던 것으로 보인다. 1911년 폴리 신부가 뮈텔 주교에게 보낸 서한에 보면 수곡성당에 프랑스로부터 받은 14처를 설치하는 권한을 주교에게 요청하였다(한국기술교육대학교 건축공학부 도시건축연구소, 2012, pp. 25-27). 나바위성당과 유사한 인쇄 성화를 설치하였던 경북 예천 풍덕(못안)공소는 1909-1910년에 설립된 공소이다. 현재 안동교구 역사전시관 소장 ‘십자가의 길’의 설치일은 1939년 5월 20일이고 성로 상본의 가격은 상본이 4원, 사진틀은 8원이며, 건설한 이는 정요셉 신부이다(박아림, 2025, pp. 235-236).

3.3. 인쇄 정보와 유입 경로

20세기 전반에 세워진 한옥 교회에 설치된 ‘십자가의 길’ 성화의 인쇄 정보는 어은 공소, 수분공소, 양촌 공소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어은 공소의 성화는 인쇄 성화 하단과 우측의 테두리에 판화 번호, 원어 제목 등 정보가 있다. 제2처에는 판화 번호,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라틴어 제목과 순번, 이탈리아어 제목이 보인다. 제3처는 라틴어 문장 “Imprimi permittitur Ordinepise Limburgensis”이 있어 림부르크 주교 문장을 인쇄하는 것이 허가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제10처는 판화 번호, 라틴어 제목과 순번, 프랑스어 제목과 림부르크 주교 문장 인쇄정보가 있다. 제3처와 제10처는 쾰른 남쪽에 위치한 림부르크 교구의 주교 문장을 인쇄한 공통점이 있다. 수분공소 ‘십자가의 길’ 제12처는 인쇄 번호, 라틴어 제목과 순번,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순의 제목이 있다. 제11처는 독일 인쇄 정보가 있다.

충남 예산 양촌공소의 성화는 하단에 인쇄 번호, 독일어, 영어 제목, Printed in Germany, 출판사 마크 순의 정보가 있다. 성화 우측 가장자리에는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순의 제목과 독일 림부르크 교구의 주교 문장을 인쇄하여 출판한 정보가 있다. 풍덕(못안)공소의 ‘십자가의 길’ 제7처는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순 제목이 기록되었다. 어은공소, 수분공소, 양촌공소의 14 처는 독일 제작 수출용 인쇄 성화이다. 한편 이탈리아에서 인쇄한 ‘십자가의 길’ 성화도 경남 밀양 명례성당, 강원 강릉 노암동성당 금광리공소와 경남 통영 황리공소에서 발견된다(박아림, 2025, p. 230).

성당 설립과 축성 과정에서 프랑스에서 가져왔다고 전하는 성물, 특히 인쇄 성화가 실제로는 독일 인쇄 성화인 경우 유입 경로로 1909년부터 조선에 들어와서 활동하기 시작한 독일 성 베네딕도 수도회의 역할이 주목된다. 또한 유럽에서 통용되던 ‘십자가의 길’ 성화가 출판이 발달한 독일에서 다국어 인쇄로 유통되던 상황을 보여준다. ‘십자가의 길’ 인쇄 성화는 인쇄 장소가 다르더라도 대개 정해진 범본의 도상에 따라 도식화된 형식을 보여준다. 한편 인쇄 성화를 넣은 액자의 형태는 성당이나 공소에 따라 다르다. ‘갖은자’ 한자를 사용한 액자의 경우 중국 상해 토산만 성물 제작소의 역할이 주목된다.

4. 부조 형식의 ‘십자가의 길’ 유형과 설치 기록

4.1. 제1유형의 부조

개화기에서 1950년대까지 건축된 국내 교회에 설치된 부조 형식의 ‘십자가의 길’ 은 형태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제1유형은 타원형, 제2유형은 상부가 첨두 아치 모양인 장방형, 제3유형은 단순한 장방형, 제4유형은 첨두 아치형 상부에 소형 첨탑이 좌우에 선 장방형이다. 첫번째 유형의 ‘십자가의 길’ 부조는 서울 약현성당(1892), 전북 전주 전동성당(1914)(그림 3), 경기 안성 구포동성당(1922)(그림 4), 경기 인천 답동성당(1937)(그림 5), 강원 원주 원동 주교좌성당(1954), 강원 횡성성당(1956)에 있다. 전동성당의 ‘십자가의 길’은 혼합 매체(조각+회화)를 사용한 반 입체(半立體) 형식으로, 인물과 주요 요소가 반 입체 조각으로 표현되고 배경은 회화적 요소로 처리된 점이 특징적이다. 액자 상단에는 클로버 십자가와 방패 문양에 쓰인 로마 숫자 순번이 있다. 그리스도의 수난과 십자가 처형과 관련된 도구를 나타내는 상징인 ‘아르마 크리스티(Arma Christi)’가 액자 하단에 있다.

그림 3 전동성당 '십자가의 길'[6]

그림 4 구포동성당 '십자가의 길'[7]

그림 5 답동성당 '십자가의 길'[8]

전동성당은 보두네(Francois Xavier Baudounet, 1859-1915) 신부가 1908년부터 성당 건축에 착수하여 1914년에 외관 공사를 완성하였다. 2대 주임 라크루(M. Lacrout, 1871~1929) 신부는 1918년 성당 내외부의 미화 작업, 사제관 신축 등을 추진하였다. 그간 전동성당의 '십자가의 길'은 1908~1914년 성당 신축 때 이탈리아에서 들여온 것으로 추정하였다. 전동성당 '십자가의 길'의 실제 유입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021년 '십자가의 길'과 함께 복원이 이루어진 초기 성상에 대한 정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전동성당의 제단 앞쪽에 〈성모상〉과 〈성 요셉상〉, 출입구 안쪽에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상〉을 세워놓았다. 그동안 이들 성상들은 프랑스에서 가져와 모셨다고 전하였다. 그러나 보두네 신부가 성물을 갖추지 못하고 선종하였고, 후임 라크루 신부가 중국 상해 토산만 성물 카탈로그에서 주문하려고 몇몇 성상을 잘라낸 부분이 있다(그림 6, 7).[9]

6) 2024년 2월 저자 촬영
7) 2024년 2월 저자 촬영
8) 2024년 3월 저자 촬영

노트르담의 성모 성 요셉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그림 6 토산만 카탈로그의 오려진 부분 추정[10]

그림 7 전동성당 〈성 하비에르 상〉[11]

전주교구 '성로선공' 설치 증명에 '1918년 3월 10일 전주성당 라크루 신부 2점'이 있다. 이때 설치한 '십자가의 길'은 성상들과 같이 중국 토산만 성물 제작소에 주문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전동성당에 설치된 '십자가의 길'은 국내 여러 교회에 1930~1950년대 설치된 타원형 형태의 부조이다. 전동성당은 한국전쟁으로 성당 제대와 기물 등 내부가 파손되어 종전 후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다. 전주성당의 두 번째 '성로선공' 설치는 '1952년 2월 26일 이약슬 요셉(11대 주임 신부, 1947-1954 재임) 신부의 1벌'이다. 따라서 현재 성당 내의 타원형 형태의 '십자가의 길' 부조

9) 호남교회사연구소 소장의 토산만 카탈로그와 3점의 성상의 카탈로그 사진과 복원 후 설치 사진을 '성로선공'과 설치증명에 대한 정보와 함께 보내주신 호남교회사연구소 이영춘 신부님께 감사드린다.
10) 호남교회사연구소 제공
11) 호남교회사연구소 제공

는 1952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약현성당(1892)은 1892년 코스트 신부가 설계·감독하여 세웠으며 원래는 상본 형식의 '십자가의 길'이었으나 1955년 김철교 신부 재직 시에 성당 보수가 이루어졌는데 '십자가의 길'을 전주 전동성당의 14처와 같은 모양으로 개조하여 설치하였다(약현본당 100년사 편찬위원회, 1990, pp. 72-90). 인천 답동성당(1937)은 제4대 드뇌(E. Deneux, 1904-1937년 재임) 신부가 1935년부터 증축을 시작하여 1937년 라리보(A. J. Larribeau, 1933-1940년 재임) 주교 주례로 축성식을 가졌다. '십자가의 길'의 입수일, 기증일은 1937년 11월이다(표기자, 2023, p. 103).

횡성성당은 초대 주임 양덕환 신부가 1933년 기와 목조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파괴되었다. 1955년 맥마흔 주임 신부가 양옥 석조성당을 완공하고 1956년 봉헌식을 하였다. 현재의 타원형 형태의 '십자가의 길'은 1950년대 설치로 추정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제1유형의 '십자가의 길' 부조는 대략 193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 국내의 성당에 설치된 것을 알 수 있다.

4.2. 제2유형의 부조

두번째 유형의 첨두 아치 형태의 상부를 가진 장방형 '십자가의 길'은 현재 안동교구 역사관에 전시된 경북 안동 목성동 주교좌성당(1957)의 옛 '십자가의 길'이 있다(박아림, 2025, pp. 317-319). 클로바 십자가를 상부에 달았고 로마 숫자 순번을 사용하였다. 얕은 채색 부조이나 중심 인물들의 전신이 돌출되어 입체감이 살아있다. 목성동성당은 1957년 신축 성당을 세웠으며 '십자가의 길' 부조는 이때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예는 경남 진주 문산성당과 전북 완주 고산성당의 '십자가의 길'이다.

4.3. 제3유형의 부조

세번째 유형인 장방형 형태의 '십자가의 길' 부조는 강원 삼척 성내동성당(1957), 강원 횡성 풍수원성당, 강원 원주 용소막성당, 충남 강경성당, 전남 나주 노안성당, 전북 임실성당 등에 있다(박아림, 2025, pp. 316-320). 상단의 원형 십자가와 로마자 순번의 사용, 하단의 한글 제목이 공통점이다. 인물과 기물의 고부조 표현과 배경의 건축과 풍경을 채색한 것이 특징이다.

삼척 성내동성당은 원주 원동 주교좌성당(1954), 강릉 임당동성당(1955) 등과 함께 한국전쟁 직후 강원도 지역을 담당한 성 골롬반회 신부들에 의하여 강원도 지역에 지어진 1950년대의 석조성당이다. 삼척 성내동성당의 '십자가의 길'은 1957년 교구장 승인과 설치 기록이 있다(한림성심대학 건축과, 2006, pp. 153-154) 임당동성당 역사관에 전시된 '십자가의 길'의 설치 증명은 1955년 10월 '십자가의 길'을 세웠음을 알려준다.

4.4. 제4유형의 부조

'십자가의 길' 부조의 마지막 유형은 상부는 첨두 아치 모양이며 좌우에 소형 첨탑이 세워진 형태이다. 경북 칠곡 가실성당(1923)과 충북 음성 감곡성당(1930)의 '십자가의 길' 부조가 있다. 1895년 파이야스(Palilhasse, 1868-1903) 신부가 설립한 가실성당은 1901년 7월 12일 제3대 즈와요(Joyau, 玉裕雅) 알퐁소 신부가 부임하였고, 11월 2일 프랑스에서 14처를 기증받았다(가실성당, n.d.). 로베로 신부의 기록에서는 "주교의 허락을 받아 1902년 2월 가실에 '십자가의 길'을 만들었다"고 한다(대구가톨릭대학교 영남교회사연구소, 1995). 현재 가실성당 전시관 소장의 '십자가의 길' 제3처(1901)는 당시 작은 한옥 건물에서 미사를 드리던 시기여서 소형의 '십자가의 길'을 프랑스에서 가져와 설치하였다고 한다(그림 8).[12] 충북 최초의 성당인 감곡성당의 '십자가의 길'은 입체적인 고부조 형식으로 배경을 장식적인 패턴으로 덮어서 주요 인물들이 강조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랑스어 제목이 하단에 로마자 순번과 같이 쓰여 있다(그림 9). 감곡성당은 부이용(임 가밀로 Camille Bouillon, 1869-1947) 신부가 1896년 10월 7일 설립하였다. 부이용 신부는 1903년 12월 26일 서한에서 장호원의 임시 성당에 14처를 세운 것을 새 성당에 설치했는데 이것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주교에게 새로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 묻고 있다.[13] 1904년 1월 16일에는 판공을 끝내고 돌아와서 매괴 성모성당에 14처를 세우는데 필요한 주교의 권한의 위임장을 발견하였고, 다음날 14처를 세울 계획임을 밝혔다.[14]

그림 8 가실성당 '십자가의 길'[15]

12) 한편 가실성당 100년사에 의하면 가실성당 14처는 1913년에 설치된 증명서도 존재한다. 투루뇌(Victor Tourneux, 1879-1944) 신부가 1912년에 가실성당에 부임한 이듬해에 본국 프랑스로부터 받게 되었고 1913년 10월 5일에 성당에 설치하였다.

13) 임 가밀로 신부 서한 58 Mutel 문서 1903-136 수려울, 1903.12.26.

14) 임 가밀로 신부 서한 59 Mutel 문서 1904-13/장호원, 1904.1.16. 임 가밀로 신부 서한 44, Mutel 문서 1901-108/장호원, 1901.8.23.

15) 2025년 6월 저자 촬영

그림 9 감곡성당 '십자가의 길'16)

5. 중국 유입 '십자가의 길' 액자와 중국 상해 토산만 성물 제작소

가실성당에는 여러 본의 '십자가의 길'이 소장되어 있다. 현재 성당 내부에 설치한 '십자가의 길'은 성당 봉헌 당시 중국에서 가져왔다고 전하는 액자 안에 현대 작가(손숙희 라우렌시아)의 작품을 넣었다. 대구 계산성당과 같이 '갖은자'를 순번으로 사용하였으며 액자 하단에 한자로 쓴 각 처의 제목이 있다. 제1처의 제목은 "刑死判受蘇耶"이다(박아림, 2025, 도119, 120).

가실성당의 다양한 '십자가의 길' 작품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 한국에 유입된 '십자가의 길' 미술은 유럽에서 직접 들여온 경우와 중국을 통하여 유입된 경우를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조선보다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여 성물의 제작이 활발하였다. 특히 중국 상해의 토산만 성물 제작소의 역할이 주목된다. 파리 외방전교회의 초청으로 조선에 파견된 살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는 조선 입국 길에 프랑스 예수회 수사들이 운영하던 상해 서가회 토산만 제작소에 성물 제작을 의뢰하였고 토산만에서 주문·제작한 성물을 성탄 무렵 조선에 도착한 뒤에 전달받아 성탄 전례를 치렀다(이명희, 2015, pp. 80-81). 호남교회사연구소 소장의 토산만 카탈로그는 제대와 성상, 촛대, 성수대와 함께 '십자가의 길' 14처 부조와 액자도 판매하고 있다(그림 10). 프랑스 예수회가 운영하던 중국 성물 제작 공방에서 한국으로 이어지는 교회 미술의 제작과 유통 네트워크를 상세하게 연구하는 것을 향후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16) 2025년 6월 저자 촬영

그림 10 토산만 카탈로그 표지와 '십자가의 길' 성화와 액자[17]

6. 맺음말

189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한국 교회 내에 설치된 '십자가의 길'은 회화와 부조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회화의 경우 인쇄 성화가 다양하게 활용되었으며 성화의 제작지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다. 인쇄 성화는 다양한 종류의 액자에 넣어져 있다. 독일에서 제작된 성화는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등 다국어로 제목을 적어 수출용 종교 인쇄물이 독일에서 활발하게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감곡성당과 같이 프랑스어 제목을 사용하여 제작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예도 있다. '십자가의 길' 성화의 유입에서는 성화와 액자가 같이 전해지거나 따로 들여와 조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초기에 들여온 성화나 액자가 낡게 되면 다른 성화나 액자로 교체하였을 수 있어서 유입 경로와 시점에 따라 다양한 성화가 존재하게 된다. 또한 전주교구의 '십자가의 길' 설치 증명 자료를 통하여 전주교구의 성당과 공소의 '십자가의 길' 설치를 담당한 신부와 설치 시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부조로 제작한 '십자가의 길'은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초기 프랑스에서 제작한 소형 부조에서 1930~1950년대의 타원형·첨두 아치형·장방형 부조로 변천하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이상으로 전국 각지의 교회 답사를 통하여 현존하는 '십자가의 길' 미술을 조사하여 분포 현황과 유형, 제작과 유통 경로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였으며 한국 교회 내에 설치되는 성물이자 미술품으로서의 조성 역사와 가치를 재조명하였다.

17) 호남교회사연구소 제공

참고문헌

가실성당 (n.d.). **성당역사**. http://www.gasil.kr/02_03_history.html

대구가톨릭대학교 영남교회사연구소 (1995). **대구의 사도 김보록(로베로)신부 서한집 1, 2**.

박아림 (2024). 강화지역 성공회 성당을 중심으로 본 근대 한옥 성당의 건축과 유물. **유라시아문화, 11**, 303-339. DOI : 10.47527/JNAH.2024.08.11.303

박아림 (2025). **한국의 교회미술: 1890-1960년대 가톨릭 미술을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약현본당 100년사 편찬위원회 (1990). **약현 1891-1991**. 가톨릭출판사.

윤민구 (편). (2013). **성 오메트르 신부 자료집**. 한국순교자연구회.

이명희 (2015). **한국의** 近代聖母聖畫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수경 (2010). **한국의 Stained Glass 스테인드글라스: 빛과 색채의 향연**. 이담북스.

정수경 (2009). 19세기 말-20세기 초 한국 가톨릭교회의 스테인드글라스: 서울 명동 주교좌성당과 대구 계산동 주교좌성당을 중심으로. **교회사연구, 32**, 193-217.

천주교 신봉동성당 (2013). **성인 오메트르 신부 전기**. 수원교회사연구소.

천주교 전주교구 (n.d.). **나바위성지**. https://www.jcatholic.or.kr/theme/main/pages/terrasanta07.php

표기자 (2023). **천주교 인천교구 주교좌 답동 성 바오로 대성당의 건축양식에 관한 분석**. 인천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1999). 십자가의 길. In **한국가톨릭대사전** (pp. 5579-5584).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2002). **한국가톨릭대사전**.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순교자와 증거자들**.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뮈텔 주교 일기 2(1896-1900)**.

정순택 (2017). **한국천주교교회사 3**. 한국교회사연구소.

Berneux, S. F. (2018).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한국교회사연구소 역.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건축공학부 도시건축연구소 (2012). **서산 상홍리 공소 기록화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한림성심대학 건축과 (2006). **삼척 천주교 성내동성당 기록화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1841&bbsId=BBSMSTR_1021&mn=NS_03_08_01

A Study of Stations of the Cross in Modern Korean Churches

AH-RIM PARK Professor, Department of Painting, Sookmyung Women's University/
Operating Committee Member, Research Institute for Creativity and Convergenc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comprehensively examines the distribution, typology,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hannels of "Stations of the Cross" art installed in Korean Catholic churches built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1890s to 1950s). First, the distribution of "Stations of the Cross" art was identified through field research. This art was categorized into two types, printed icons (paintings) and reliefs, and their formal and iconographic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Furthermore, to trace the installation process and chronology, archival documents from the Jeonju Diocese were utilized to identify the priests responsible for installing "Stations of the Cross" in parishes and chapels within the diocese, as well as the dates of their installation. This approach concretizes the context of their installation and composition.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Stations of the Cross" in churches during this period primarily consisted of printed engravings and reliefs with multilingual captions produced in Germany, Italy, and France. In the case of the prints, the numbering of the 14 stations is notated using both Roman numerals (I, II, III) and Chinese characters (壹, 貳, 參). The Chinese character notation suggests they may have been produced by the Tushanwan Crafts Academy in Shanghai. German-made iconography reveals the active export structure of religious prints through the numbering and multilingual titles in front of the work. The relief-type "Stations of the Cross" is classified into four types based on its form, and a change was confirmed from the small wooden reliefs produced in early France to the oval, pointed arch, and rectangular plaster reliefs of the 1930s to 1950s. Through a survey of churches across the country, we investigated the existing "Stations of the Cross: art, comprehensively examining its distribution status, type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hannels, and re-examined the history and value of its creation as a sacred object and work of art installed in Korean churches.

Keyword

Stations of the Cross, Paris Foreign Missions (MEP), Sacred Objects, Tushanwan